

# 구해줘2 · 보이즈3 · 검법남녀2, 시즌제 드라마 성적은?



시즌제 드라마가 성행 중이다. 작품성과 재미를 인정받으며 전작의 배경을 활용하거나 이어가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OCN 수목드라마 '구해줘2' (극본 서주연, 연출 이권)는 궁지에 몰린 마을을 구원한 헛된 믿음과 그에 대적하는 '꿀봉'의 구원자로 전작과는 차별화된 매력에 드러내고 있다. OCN 토일드라마 '보이즈3' (극본 마진원, 연출 남기훈)은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리는 배경을 이어가면서도 더 강력한 악을 그리며 흥미를 높이고 있다. MBC 월화드라마 '검법남녀2' (극본 민지은, 연출 노

도철)는 까칠 법의학자, 열혈 신장 검사, 베테랑 검사의 돌아온 공조를 다양한 사건과 빠른 속도로 보여주며 승기를 잡는 데 성공했다.

◇ 구해줘2, 뒷심 발휘할까

2017년 방영된 '구해줘'는 사이버 종교집단 내부 이야기를 소재로 해 '떨지어다' 등의 유행어를 남기는 등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해줘2'는 전작과의 연관성은 없지만 믿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연결 기록을 그리는 배경을 이어가면서도 더 강력한 악을 그리며 흥미를 높이고 있다. MBC 월화드라마 '검법남녀2' (2013)를 원작으로 한다. '구해줘2'는 깔끔하고 선한 인상의 교회 장로 최경석(천호진)이 법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가상의 마을 율추리 주민들을 현혹하면서 시작됐다. 최경석의 극악무도함은 이미 드러났다. 김연선(이승)을 서울의 술집으로 보내버리고 성호함배(이주실)의 죽음까지 조작했다.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정체를 알게 된 병률(성혁)은 최경석에 의해 감금됐다. 이 와중에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김민철(염태규)이 홀로 최경석의 악행을 밝혀내고 있다.

1.4%(닐스코리아 유료플랫폼 가구 전국 기준)로 출발한 '구해줘2'는 1% 후반대의 시청률을 보이고

## 작품성과 재미 인정받으며 시청자들 관심 집결

있다. 9회가 기록한 2.2%가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전작이 1.1%로 시작했지만 8회 3.0%를 넘고 마지막 회 4.8%를 달성하며 뒷심을 발휘한 것과는 비교되는 아쉬운 성적이다. 과연 '구해줘2'가 시즌처럼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 보이즈3, 5.4% 찍고 잠잠...시즌2 넘어설까

'보이즈' 시리즈는 2017년 처음 방송된 후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를 얻으며 시즌3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시즌은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텔라를 큰 골격으로 한다. 하지만 날다른 청력을 지닌 강권주 팀장(이하나)이 폭발사고로 이명이 생겼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간직했지만 형사가 된 도강우(이진욱)가 약한 본능이 깨어나며 시즌3만의 특별함을 완성했다.

'보이즈'는 인간 혐오적 블랙 컬렉션이 오가는 디크립, 육선 파브르의 배후를 쫓는 골든타입팀의 고군분투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은 수도복 차림에 가면 쓴 의문의 살인가 '와이어순'의 정체가 도강우 부친이 살해했다고 알려진

미호의 친오빠 후지야마 코이치(이용우)로 밝혀졌으나, 죽음을 맞았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죽음을 당한 카네키 유키코(양예승)의 남편인 카네키 마사유키(박병은)가 의문으로 남자로 등장했다. 아무도 없는 후지야마 코이치 부검실에서 그는 '내가 신랄한 안식이 참 잘 어울려요. 우리 후지야마 코이치 씨. 나 당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 미스터리를 더했다.

도강우 형사의 실제 또한 궁금하다. 후지야마 코이치는 미호 살인 사건의 진술서에 '나는 범인을 안다'라며 도강우를 지목했고, 강권주 또한 도강우를 향한 의심을 키웠다. '보이즈' 시즌3는 평균 7.1%, 최고 7.0%로 OC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즌3의 기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2회 만에 5.0%를 넘어섰고, 6회 5.4%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으나 현재 4%대의 시청률을 유지 중이다. 과연 '보이즈3'가 시즌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 검법남녀2, 승기는 잡았다...전작 최고 기록 갈아치울까

MBC의 첫 시즌제 드라마 '검법남녀2'는 법의학자, 신장 검사, 검사

필치는 범죄 공조 수사를 다룬 작품이다. 지난해 5월 방송돼 호평을 얻고 1년 만에 시즌2로 돌아왔다. 이 드라마는 시즌 1의 주역이었던 노도철 PD와 민지는 작가가 의기투합했고 정재영, 정유미, 오만석 등이 그대로 출연 중이다.

노도철 PD가 "시즌 시청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유입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처럼 시즌을 보지 않은 시청자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극에 집중할 수 있는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시즌1의 엔딩을 장식했던 '오만상 사건'에 대한 의문은 계속된다. 여기에 성희롱 사건으로 역인 사원과 부장의 사건 미약 밀폐법 살인사건, 100억 유산의 횡방을 거르기 위한 부검 등 다양한 사건들이 이어져 터지면서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망설임 없이 빠른 연출과 이미 전작을 통해 합을 맞춘 정재영 정유미 오만석의 시너지 여기에 노민우 김승현 등 새로운 얼굴들이 주는 재미가 극의 활력소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시즌1의 최고 시청률은 9.6%(닐스코리아 전국기준)였다. 시즌2는 MBC가 편성 시간을 오후 9시로 옮긴 만큼 변수가 있지만 4회 만에 6.8%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과연 전작의 성적을 시즌2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 '문제적남자' 시즌2 종료→휴식기 돌입



'문제적 남자'가 시즌을 마치고 휴식기에 돌입했다. 제작진의 마지막 메시지가 타이틀러를 울컥하게 했다.

10일 방송된 tvN '문제적남자'에는 '문남을 사랑하는 친구' 특집으로 원더걸스 출신 해립과 황치열, 박신영 아나운서, 스텔라장, 유병재, SF9 인성이 출연했다.

각각 3번째 출연인 해립과 스텔라장은 "문남 멤버 6명이 다 있는 건 처음"이라며 기뻐했다. 해립은 가수에서 번역가로 변신할 바 있다.

이날 황치열은 "확장시절 지능지수(IQ)가 132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수화반으로 활동할 만큼 뇌색남의 기질이 있었다고 전했다. 화려한 손놀림으로 큐브를 맞추는가 하면, 이장원과의 큐브 대결에서 1분 2초 만에 완성이 됐다.

황치열은 러블리즈, 뉴이스트, 서프라이즈 등의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했던 사실을 공개하며 박효신, 임창정 등의 모창을 펼쳤다. 이에 스텔라장이 박정현 성대모사로 맞섰다. 하지만 스텔라장은 '박정현 언니 앞에서 해본 적 있는데, 떨떠름해 하시더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또 문제 풀기를 포기한 전현무를 위해 댄스 과외도 나섰다. 황치열은 웨이트 비결에 대해 "공이 굴러간다고 상상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문워크까지 선보였다.

마지막 문제풀이에 나선 타이틀러는 "제작진이 우리와 시청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정답은 'See You Again'이었다.

문제적 남자 측은 "잠깐 재정보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더 기발하고 재미있는 문제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또 만나요"라고 인사를 전했다.

문제적 남자의 휴식기는 처음이 아니다. 2015년 2월 26일 첫 방송된 문제적 남자는 이해 7월 한 달 동안 휴식기를 거쳤고, 2018년 3월에는 두 달 동안 원투 시즌2로 변신한 바 있다.

17일부터 월요일 11시에는 한혜진과 이용진, 규현이 새 멤버로 합류한 '더 잔내투어'가 방송된다. '문제적 남자'는 재정보 후 하반기 중 컴백할 예정이다.

## '아스달 연대기' 2주 연속 드라마 화제성 1위

굿데이퍼레이션이 지난 10일 발표한 6월 1주차 TV화제성 드라마 부문 1위는 2주 연속 tvN '아스달 연대기'가 차지했다. '아스달 연대기'는 전주 대비 화제성 점수가 상승했으나 어렵고 난해한 스토리, 더린 전개 등에 부정적 여론이 대거 발생했다.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는 송중기가 3위, 장동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MBC 수목 드라마 '불밤'이었다. '불밤'은 정해인의 술에 취한 연기가 화제를 모으며 지난주 대비 화제성 점수가 약 29% 상승, 드라마 부문 점유율 13.25%를 차지했다. 배우 정해인은 출연자 화제성 부문 1위, 한지민은 2위, 김준현은 전주 대비 18계단 순위가 급상승하여 10위를 기록했다.

3위는 tvN 수목 신작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가 차지했다. 다양하고 임체적인 캐릭터 설정, 감각적인 영상미, 포털 업계에 있을 법한 스토리, 설렘 가득한 로맨스 등에 호평이 발생했다.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걸크러쉬를 보여준 배우 임수정은 6월 1주차 출연자 화제성 4위에 진입했다.

4위는 KBS2 월화 신작 드라마 '퍼펙트 이었다. 기대했던 것 보다 재미있었다'는 네티즌의 긍정적인 반응이 발생했다. 또한 고원희의 달린진 외모에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되며 고원희가 출연자 화제성 5위를 기록했다.

5위는 OCN 토일 드라마 '보이즈3'가 차지했다. 2주 연속 화제성 점수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순위는 전주 대비 1계단 하락했다. 극중 코이치의 공범이자 라이너의 정체



배우 박병은으로 밝혀지며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6위는 KBS2 수목 드라마 '나의 사랑'이었다. 방송 첫 주 이후 2주 연속 화제성 점수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드라마 부문 순위는 1계단

상승하였다. 배우 신혜선은 연기력에 호평이 이어지며 출연자 화제성 8위에 올랐다.

7위는 MBC 월화 신작 '검법남녀 시즌2'가 차지했다. 지난 시즌보다 한층 더 발전한 작품 수준에 네티즌은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뒤를 이어 드라마 화제성 8위는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이, 9위는 tvN 월화 드라마 '어비스'가 차지했으며 배우 박보영은 출연자 부문 6위였다. 10위는 OCN '구해줘2'가 전주 대비 6계단 순위가 올라 10위에 진입했다.

이 외에 JTBC 월화 드라마 '바람이 분다'에 출연 중인 배우 김하늘은 전주 대비 출연자 화제성 순위가 3계단 하락하여 출연자 부문 9위를 기록했다.

## 김나영, 신곡 '솔직하게 말해서 나' 음원차트 올킬



김나영이 신곡 '솔직하게 말해서 나'로 사랑받고 있다.

9일 공개된 김나영의 신곡 '솔직하게 말해서 나'가 발매 이후 온라인 음원 차트를 올킬해 화제를 모은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11일 오후 1시 기준 멜론 지니뮤직, 엠

넷, 빅스, 올레뮤직 등 총 5개 주요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며 음원 차트를 '올킬'했다. 김나영의 이번 차트 올킬은 민고 듣는 '음원 킥'으로서 입지를 확인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쓸쓸하고 답답한 분위기의 이지 리스닝

발라드 곡으로 지금까지의 김나영의 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점점 고조돼 곡의 끝자락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사랑에 있어 가장 슬픈 이별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가사, 그리고 김나영의 특유의 감정과 목소리가 더해져 애절한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전해준

##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음력 5월 10일)

- ▶**소띠** 한걸음씩 나아가는 재세가 길하다. 1, 3, 5, 9월생 고집이나 주저함은 행운을 놓치게 하니 끈기있는 자세를 갖되 당당함을 잃지 말 것. 7, 8, 9, 10월생 직장인은 그동안 공로를 상사로부터 인정받았으니 기쁨의 하루가 되겠다.
- ▶**돼지띠** 4, 5, 7, 9월생 일이 아무리 안 풀려도 지나친 신경은 쓰지 마라. 8, 9, 10월생은 여행으로 인한 피로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면 건강 체크를 꼭 받아 보는 게 좋겠다. 오늘은 깜빡하여 물건을 잃어버리기 쉬우니 조심할 것.
- ▶**사슴띠** 쉽게 얻으려 들면 일이 더 꼬일 수 있으니 4, 5, 9, 10월생은 정도를 걷을 것. 밤, 용, 돼지띠는 자신에게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사람이니 그의 말과 뜻에 순종함이 좋을 듯. 2, 5, 10월생 남자는 금년에 새 식구가 나는 격.

- ▶**물고기띠** 먹구름 걷히고 많은 태양이 떠오르는 격. 7, 8, 9월생이 그동안 막혔던 금전관계 운이 상승한다. 직장인이나 의료, 자영업자는 구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황재수가 있으니 특히 4, 5, 10월생이라면 오늘을 기대해도 좋을 듯.
- ▶**말띠** 4, 7, 11월생 명예를 기대하거나 너무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게 좋다. 우둔할 정도로 성실한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되니 10, 11, 12월생 매사 분수를 지킴으로써 정직하고 솔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면 말, 닭, 소띠가 당선된다.
- ▶**말띠** 2, 7, 12월생 남성은 하는 일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힘이 모자라서 추진력이 미흡할 수. 같이 사는 사람이나 타인 7, 8, 9월생의 힘을 빌리면 대성할 수 있겠다.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도 참아라.
- ▶**돼지띠** 어떤 욕망이 1, 9, 10월생 당신을 지배하려 들면 반대되는 방법을 써서 억제하도록 하라. 허영심에는 세상의 비참함을 분노에는 온화의 아름다움을 대조시켜 보고 다른 것도 이와 같이 시도해 볼 것.

- ▶**물고기띠** 1, 5, 9, 10월생 밖에서는 활달하여 다른 곳에 눈 돌리면서 잘 어울리는데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니 같이 사는 사람과 언쟁이 떠날 수. 구설수 조심하고 귀가에 신경 쓸 것.
- ▶**말띠** 4, 5, 9, 10월생은 이야기하려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대화를 회피하는 것도 피해야 할 양극단이다. 그러나 전자를 후자보다 더 조심해야 할 때이니 사람을 사귀는 데 신중을 기함이 좋을 듯.
- ▶**물고기띠** 남의 것 화려하다 생각 말고 내 것 내가 다듬어 요리할 때 더욱 더 멋진 맛을 낼 수 있음을 깨달아 실천할 때. 2월생 중 4, 5, 9월생은 현재만 생각 말고 미래를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라. 동남 부부는 연애 조심할 것.
- ▶**물고기띠** 흘러가는 세월 잡을 수 없으니 시간을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발전을 위해 7, 8, 9월생은 보다 더 힘써야 할 때. 노력하면 하는 만큼 얻을 수. 원숭이, 말, 버찌의 뜻에만 맡기지 말고 주관을 갖고 새롭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좋을 듯.